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과 의미

김은일*

— <차 례> —

1. 서론
2.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
3.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좁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좁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은 주어진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은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유우성과 〈이현경전〉의 이현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가문소설, 후자는 여성영웅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이양문록〉에 이 두 텍스트가 소환된 것은 가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결합을 의미하며 〈유효공선행록〉 연작을 단편적으로 〈이현경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 〈유이양문록〉이 여성 중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효공선행록〉과 〈이현경전〉은 대중성이 확보된 텍스트로 이 두 텍스트의 소환을 통해 독자들은 〈유이양문록〉에서 기체험 텍스트를 만나게 된다. 이는 얇이라는 반가움과 신선함이라는 흥미를 유발하여 독자들이 〈유이양문록〉을 보다 재미있게 느끼도록 하려는 소통전략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충북대학교 강의교수

유이양문록, 상호텍스트성, 유효공선행록, 유씨삼대록, 이현경전

1. 서론

<유이양문록>은 19세기에 향유된 것으로 알려진 낙선재본 소설로 유門과 이門¹⁾의 3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유이양문록>은 현재까지 밝혀진 양문록 계열 작품 중에서 가장 긴 분량²⁾으로, ‘남성 인물 중심의 일대기에서 가문 중심의 누대기로 확장’되는 유형³⁾에 해당한다. <유이양문록>의 서사는 가문소설에서 주로 나타나는 혼사장에담⁴⁾에 해당하는 단위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⁵⁾ 그런데 이 단위담들은 한 소설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당대 소설들에서 유사한 형태로 조금씩 변형되어 나타나며 <유이양문록>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개용단’ 화소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가문소설에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적강화소 혹은 구조는 거의 기본적으로 설정되

1) <유이양문록>에는 후반부에 장門이 등장하기는 하나, 장門의 존재 이유가 유門과 이門에 있기 때문에 주요 가문은 유·이 두 가문으로 본다.

2) <곽장양문록> 10권, <김이양문록> 1권, <부장양문록> 5권, <이조양문록> 2권, <최효양문록> 1권, <하진양문록> 25권, <유이양문록> 77권

3) 김은일은 양문록계 소설을 ‘남성 인물 중심 일대기 제시와 가문 누대기로 확장하는 유형’, ‘여성 인물 중심 일대기 제시와 가문 단대기로 전환하는 유형’, ‘남녀 인물별 일대기 제시와 가문 단대기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눈 바 있다. (김은일, 『양문록계 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03쪽.)

4)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21~30쪽에서는 대하소설을 구성하는 큰 단위로서 단위담을 설정하면서, 단위담의 하위유형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혼사장에담’을 언급하였다.

5) <유이양문록>을 가문소설의 하위장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대체로 양문록들은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여성영웅소설)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문소설이나 영웅소설로 귀속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이양문록>도 당대 소설들이 기본적으로 포함하던 화소나 당대 소설들이 관습적으로 취하는 구조 등을 거의 수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유이양문록>에 수용된 몽유양식을 꼽을 수 있다.⁶⁾ 그런데 <유이양문록>에서는 당대에 존재하고 있던 다른 고소설 작품을 수용하여 작품의 분량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숙례⁷⁾도 이 부분에 대하여 ‘당대 소설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바 있다. 그는 <이현경전>의 이현경과 <유씨삼대록>의 유우성을 ‘인용’했다는 현상을 나열하면서, “작가는 (중략) 당대의 소설들을 다양히 접해 폭넓은 소설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하며 적재적소에 인물들을 끼워 넣어 기존 작품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작품의 풍미를 더욱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의미를 추출하였다.

<유이양문록>의 창작 방식 중에 주목할 것 중 하나가 ‘당대 소설의 수용’이라는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독자가 느낄 풍미를 위해 당대의 소설을 인용할 때 굳이 <유씨삼대록>⁸⁾과 <이현경전>을 끌어왔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그런데 당대의 소설들인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의 수용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통해 설명하기 쉬워 보인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개용단 화소나 처첩갈등, 군담, 금강산 여행⁹⁾ 인간이 다시

6) 김은일,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몽유양식의 수용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7) 박숙례, 「<유이양문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56~58쪽.

8) 유우성은 <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에 모두 나오기 때문에 꼭 집어 <유씨삼대록>에서 인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공선행록> 연작에서 등장하는 유우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9) 이지영, 「중국 배경 대하소설에 나타난 금강산의 의미 -<유이양문록>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49, 한국문화언어학회, 2008, 213~246쪽.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¹⁰⁾, 여성들의 그림 활동¹¹⁾ 등의 화소 역시 ‘상호텍스트성’으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텍스트는 ‘직조물(textile)’에서 온 단어로 여러 가닥의 문장과 문맥으로 짜 맞추어 만든 글이나 말을 뜻한다.¹²⁾ 롤랑 바르트는 텍스트가 전적으로 인용과 지시물들로 짜여지며 “현대의 문화적 언어들은 하나의 거대한 입체 음향 속에 텍스트를 여기서 저기로 횡단한다.”고 한다.¹³⁾ 크리스테바는 수신자들이 언제나 원본을 자신의 것으로 정립할 수 있는 “과정 중인 자신을 말하는 주체의 가능성”이라고 하였으며, 조너선 킬러는 한 작품이 가지는 그 이전의 특정한 텍스트와의 관련성 혹은 한 문화의 담론 공간에 참여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한 바 있다.¹⁴⁾ 다시 말하자면 텍스트는 수많은 문화의 온상에서 온 인용들의 짜임¹⁵⁾으로 어떤 텍스트이든지 다른 텍스트와 관련을 맺는다. 이를 상호 텍스트성이라 한다.

모든 텍스트들이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는 롤랑 바르트의 주장처럼, 문학 텍스트는 사회 텍스트의 인용, 그 전에 존재했던 또 다른 문학 텍스트의 인용을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고 있다.¹⁶⁾ 그에 따르면 ‘작가’는

10) 공혜란, 『<유이양문록(劉李兩門錄)>에 나타난 환생 연구 : 혼인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06쪽.

11) 서정민, 『한글 대하소설 속 여성 그림 활동의 특징과 문화적 배경 -<소현성록>과 <유이양문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311~334쪽.

12)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01, 160쪽.

13) 김희영 역, 롤랑 바르트, 『텍스트의 즐거움』, 2002, 27쪽~35쪽에서 롤랑 바르트는 “어느 것도 근원적이지 않은 여러 다양한 글쓰기들이 서로 결합하며 반박하는 다차원적인 공간”을 텍스트라고 본다.

14)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225쪽.

15) 김희영 역(2002), 앞의 책, 32쪽.

16) 김희영 역(2002), 앞의 책, 42~47쪽.

텍스트를 재배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작가의 인생관이나 철학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노력은 허망한 것이 된다. 단지 텍스트를 수용하는 독자들에게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자를 글쓰기의 총체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¹⁷⁾

고소설은 작가를 알 수 없는 텍스트의 수가 더욱 많다. 한 텍스트가 있을 때 그 텍스트가 처음 쓰인 원본이라는 확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을 ‘작가’라고 보기보다는 ‘필사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도 있다. 또한 수많은 이본들이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필사자에 따라 텍스트를 재조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고소설은 텍스트와 필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때 고소설을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텍스트를 인용 혹은 모방한 필사자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¹⁸⁾ 저자가 드러나지 않는 고소설은 바르트가 주장하는 바의 좋은 예로 보인다. 고소설이야말로 작가의 존재를 논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필사자의 존재가 작품의 내용을 변형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소설은 장르관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텍스트들 간의 상호성을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고소설을 연구하는 것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돕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고소설 전반의 상호텍스트성을 밝히는 거대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상호텍스트의 양상이 잘 드러나는 <유이양문록>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양문록계 소설은 당대에 유형화되어 있던 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이라는 장르의 유형적 특징을 모두 갖

17) 김희영 역(2002), 앞의 책, 32~35쪽.

18) 김희영 역(2002), 앞의 책, 28쪽.

고 있기에¹⁹⁾ ‘영웅소설’이라 할 수 있는 텍스트와 ‘가문소설’이라 할 수 있는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수용한다.

그 중 <유이양문록>은 몽유양식의 수용 및 당대 소설들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넓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과 좁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²⁰⁾의 양상을 모두 보이는 작품이다. 따라서 <유이양문록>을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일은 향후 고소설 연구에 대한 방향 제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유이양문록>이 굳이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의 텍스트를 인용하였는지 밝히는 작업은 <유이양문록> 자체의 텍스트 내적 세계를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이양문록>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용단 화소, 처첩갈등담, 군담 등과 같은 텍스트들은 <유이양문록>을 구성하는 특수한 경우의 상호텍스트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설 일반에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은 이미 하나의 완결성을 띤 텍스트이다. 당

19) 김은일(2016), 앞의 논문, 131~133쪽.

2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154~155쪽에 따르면 “상호텍스트성은 일차적으로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 즉, 텍스트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중략) 가장 제한된 의미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이란 ‘주어진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텍스트와 텍스트, 혹은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를 가리킨다. 후자의 경우 주어진 텍스트는 단순히 다른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기호체계, 더 나아가서는 문화일반까지 포함한다.” 정리하자면 상호텍스트성의 외연을 넓혀 ‘텍스트와 텍스트, 혹은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로 볼 수도 있고, ‘주어진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로 외연을 좁힐 수도 있다. 이를 고소설에 적용하면 전자의 경우 개용단 화소, 처첩갈등담, 군담 등 당대에 존재하던 텍스트들의 재조직, 당대 사회·문화적 맥락의 텍스트의 반영 등을 꼽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유효공선행록> 연작이나 <이현경전>과 같은 텍스트의 인용을 예로 들 수 있다.

대에 인기 있는 다른 소설을 수용할 수도 있으나, <유이양문록>은 이 두 작품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이양문록>이 이들 텍스트와 그 텍스트의 특정 인물을 소환하여 상호텍스트성의 관계에 놓임으로써 얻는 효과와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2.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

넓은 의미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라 하여 ‘화설’, ‘각설’, 혹은 ‘대명연간’과 같은 상투적인 기호들조차도 상호텍스트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은 ‘주어진 텍스트-<유이양문록> 안에 다른 텍스트-<유효공선행록> 연작이나 <이현경전>이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여 <유이양문록>에 나타나는 두 가지 상호텍스트성을 대상으로 한다. 즉, <유이양문록>에는 좁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의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등장인물인 유우성의 경우, 두 번째는 <이현경전>의 등장인물인 이현경과 그 자손인 장월주, 장계성, 장병념의 경우이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은 각각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텍스트이다. <유효공선행록>은 <유씨삼대록>의 창작시기가 1780년 이전으로 소급되면서 <유효공선행록> 역시 비슷한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²¹⁾ <이현경전> 역시 17세기 말~18세기의

21) 최길용, 「<유효공선행록> 연작연구-<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의 작품적 연결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1992, 132~133쪽.

작품으로 소급되고 있다.²²⁾ 이를 보면 두 작품은 거의 동시대에 존재하고, 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지향을 보이면서 유형적 성격이 다른 각각의 작품이 한 작품에 수용된 것은 특이한 점이라 할만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이양문록>에 수용된 전형적인 연작형 가문소설인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초기 여성영웅소설인 <이현경전>의 두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유우성

<유이양문록> 권 5에는 <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인물인 유우성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유우성이 등장하는 맥락은 다음과 같다. <유이양문록>의 한소주는 이연기의 두 번째 부인으로 원비인 유필염을 모해하는 인물이다. 초기에 한소주는 이연기의 사랑을 얻기 위해 유필염을 모해하나 실패한다. 이연기의 부친인 사마 이운수를 통해 한소주의 악행이 드러나고 한소주는 가내에서 쫓겨나 친정에서 지내게 된다. 쫓겨난 한소주는 이연기에 대한 애정을 독차지하고자 하여 끊임없이 이문의 사람들과 접촉한다. 특히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정부인과 둘째 딸 차염을 온갖 뇌물로 회유한다. 하지만 가내에 이운수가 있는 한 한소주의 계략이 통할 수 없다. 이에 한소주는 부친인 한부마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한다. 첫째는 ‘방술을 펼 수 있는 약을 구해줄 것’이며, 둘째는 ‘사마 이운수를 원방에 보내어 한소주가 이문으로 재입성할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²³⁾

22)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248~251쪽.

23) 한시 집의 도라가 제 허물을 다 숨기고 뉴시 죄로써 제게 띄워 뽀박혀 뉴치더라
 하여 구부와 한님을 무궁히 원망하니 한부미 디로하며 결치히고 스마 부즈를 죽이고
 기덕고져 허거늘 한시 한님이 경이 밋쳤고 원이 골슈의 스몏춘 부디 뉴시를 업시하

이때 마침 하남, 하북 등에서 자연재해와 도적이 발생하자 하남 초토사가 필요해진다. 이 장면에서 유우성이 등장한다. 한부미는 이때를 타 태사령 유우성과 접촉하고 이윤수를 초토사로 천거토록 한다.

이 썩 하람 하북 등처의 기근흔직 년흉하여 인심이 니반하여 도적이 벌
니듯하니 절도식 이히 능히 제어치 못하여 표문을 도정의 올녀 문무점전
양신을 보녀 초안히시물 청히니 상이 경으스스 도회를 배회 문무를 모하
의논하시더니 한부미 썩를 타 틱스령 유우성을 축하여 탐년의 주왈 대스마
니영슈²⁴⁾ 문무디직 가장 초출 혼온지라 하람 초토스를 빙히미 맛당히이다
츠시 빙관이 맛당흔 즈를 심각지 못하여 반나마 뉴병부를 천거크져 헛디 더
의 위친디회 일시 이측을 츄마 못흔물 거세 다 아는 고로 발구치 못하여 기
여를 심각하되 가합흔 니를 엇지 못하야 머뭇기더니 틱스의 말을 조츠 년성
하여 맛당흔물 주히니 모든 의논이 구일흔지라 원니 뉴틱스 우성은 빙온선
싱 후예라 용모덕행이 만묘의 출뉴히니 상충이 만묘의 우히오 거세 다 츄복
히더라 한부마로 저가 지의 잇서 면분이 친흔 고로 부미 거쥬 국스를 위흔
체하야 니스마의 녕무디직를 탄상하야 토토스 동임이 맛당흔물 일컷르니 틱
식 그 협원 잇는 줄 모로고 말인즉 올흔지라 드디여 천거히니 상이 의윤하스
니스마를 일변 위유히시고 하람 초토스를 빙하여 황모절월을 주시고 상방보
검을 치오스 선참후계하라 헛시고 국식 긴급히니 즉일 출스케 하시니 은영
이 만묘의 빙느더라²⁵⁾

고저 헛거늘 부인이 과도흔물 말니고 왈 구부와 니싱이 비록 그치나 존고 명부인이
오히려 과도히 후회를 괴약하스 년석히시니 망단흔 출뵈 아니니 야야는 쇼녀를 위하
스 가산을 앗기지 마르시고 존고기 뇌유를 베푸시면 천금을 호터니여 원방의 고히흔
방술노 더 부부의 금슬을 회젓게 헛시고 썩 니스마를 원방의 썩여 보히시면 쇼녀 더
곳의 나으가기 어렵지 아니리이다 <유이양문록> 권5.

24) 작가의 착각인지, 앞부분에서는 사마 이윤수로 표기 되었던 것이 여기서는 이영수로 표기되어 있다.

25) <유이양문록> 권5.

이윤수가 집을 떠나게 되면 한소주가 이門으로 돌아와 일을 도모할 틈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음 사건 진행을 위한 필수적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윤수가 부재하는 상황을 만드는 인물이 유우성이 된다. 물론 유우성의 뒤에는 한부마가 있으니, 이윤수를 하남으로 보낸 사람은 한부마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윤수를 하남으로 보낸 사람은 유우성이 된다. 그런데 이때 유우성의 내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우성이 <유효공 선행록> 연작의 등장인물임이 확실해진다. 즉 당대에 존재했던 실제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좁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2) <이현경전>의 이현경

<유이양문록>의 권 37에서는 <이현경전>의 이현경이 등장한다. 이현경은 2세대 인물들의 단위담에서 등장한다. 유門과 이門이 결연을 통해 결합하고 한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그들의 자손에게로 초점이 옮겨간 시점에서 <이현경전>의 수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권 15에서 이창원의 혼례문제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창원의 혼례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지 않는다. 권 15이전까지 이어지던 유필염과 이연기 중심의 1세대의 단위담에서 이창원을 비롯한 2세대 인물들의 단위담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²⁶⁾인 ‘금강산 체험’ 혹은 ‘부친탐색화소’로 나타나는 장면이 권 15에서부터 권 31까지에 나타난다. 권 31에서 이연기가 10년의 고행을 마치고, 이창원이 부친인 이연기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비로소 2세대 인물들의 서사가 진행된다.

윤운병은 1세대에서부터 문제를 발생시켰던 한소주가 환생한 인물로 이연기를 꼭 닮은 아들인 이창원에게 운명처럼 끌리게 된다. 이때 윤운병은 이창원을 비롯한 이門에서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門의 2

26) 김은일(2014), 앞의 논문, 315쪽.

세대까지 사건에 휘말리게 한다. 윤운빙은 유門의 유진과 이門의 이차염의 2세인 유세창에게도 반하여 이름을 신운화로 개명한 후 유門까지 같은 국면에 접어들게 한다. 이때 유세창의 원비가 바로 <이현경전>의 주인공인 이현경의 장녀 ‘장월주’이다.

장월주는 권 37에 등장하며 이후로 <이현경전>은 <유이양문록>이 끝날 때까지 서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현경의 자손들인 ‘장월주(女)’, ‘장계성(男)’, ‘장빙님(女)’이 각각 유門의 유세창, 이門의 이몽해, 이창희와 혼인을 하게 되면서 각 부부들의 단위담이 권 77까지 계속 나타난다.

<유효공선행록>의 유우성이 잠시 지나가는 인물로 소환되었다면, <이현경전>은 <유이양문록> 2세대들의 서사에서 빠질 수 없는 텍스트로 소환되었다. 만약 <이현경전>이 없었다면 <유이양문록>의 2세대들의 서사는 없고, 유필염과 이연기의 단위담으로 마무리 되었을 것이다. 총 77권의 분량에서 37권 이후로 나오는 약 40권의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은 <유이양문록> 전체서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이현경전>이 <유이양문록> 텍스트 내적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유이양문록>과 <이현경전>이 이루는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 존재기반의 문제를 야기한다. 다음 인용문을 통해 <유이양문록>과 <이현경전>의 상호텍스트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당공의 증는 예람이오 디디 교목세기라 당공이 풍치 풍던옥슈갓고 거되
츄월갓트며 관옥안면이오 현으스인이라 십오의 등제호여 한원옥당의 주리
를 발바 쏘 도적을 치고 디공을 세워 청취후 네부상셔오 ㉠ 부인 니시는 시
속 범니호 녀지 아니라 일즉 조상부모호고 녹친이 희소호며 일데 연경이 어

리니 즈기 기 시팔세라 규각의 감초인 어린 녀지 되여는 강포의 욕도 두렵고
 녕빈흔 가스를 다스릴 길히 업느니라 형세 절박하고 신세 위급하여 부득이
 여타를 감초고 남북으로 형세하니 쏘흔 작인이 비상하여 의연이 남즈의 골
 격이 있고 부인의 으리썩은 티되 업스니 세상이 알 니 업서 방심하여 글을
 힘써 장원급제하여 한원고스로 도당벽노로 하여곰 무릅쓸 쥔게 하며 넘진덕
 국하여 단필승공필취하여 성명이 허외의 진동하니 명만탄하의 복써 괴석양
 복이오 상이 네경동디러니 당상세 덜노 더브러 동창의 벗이 되여 교당이 지
 극하고 니싱이 미양 썩썩 닝담하여 벗 스괴미 남즈의 계습을 다하나 갓기이
 친밀키를 아니하니 즈연 음양의 니를 소이디 못하고 하늘이 뉘흔 썩를 미양
 발니지 야냐 당상의 영호하던 슈단의 발각흔 비 되니 ㉞ 허다흔 스명이 본전
 의 잇느니라²⁷⁾

㉞에서 서술한 내용은 <이현경전>의 대략적인 줄거리에 해당한다. <이현경전>의 기체험 독자라면 이 부분을 보며 <이현경전>의 줄거리를 회상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㉞에서 보다시피 <유이양문록>에서는 <이현경전>을 ‘본전’이라 칭한다. 그런데 본전을 보면 이현경은 나이 40에 아들 하나를 낳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유이양문록>은 <이현경전>을 ‘본전’이라 칭하며 적극적으로 텍스트를 소환한다. 따라서 <유이양문록>와 <이현경전>에서도 좁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을 발견할 수 있다.

3.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이양문록>은 <유효공선행록> 연작, <이현

27) <유이양문록> 권 37.

경전>과 상호텍스트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때 <유효공선행록>을 단편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이현경전>은 후반 서사에서 많은 비중을 두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유이양문록>은 77권에 달하는 장편임에도 불구하고 전반부에서 설정했던 문제들이 소설 전반에 펼쳐졌다가 후반에서 수렴되는 등 치밀하게 구성되고 있음은 기왕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다.²⁸⁾ 치밀한 작가가 단순히 당대의 유명한 작품이라 하여 그것을 작품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작가는 어떤 의도를 두고 두 작품을 각각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그 의도가 가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저자의 인식을 반영하는 한편 대중성 확보를 위한 전략이었을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1) 가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결합과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서사 부각

가문소설과 영웅소설²⁹⁾의 결합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³⁰⁾ 이들의 논의는 주로 개별 작품들을 대상으로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결합의 지점을 밝히는 데 있었다. 그런데 양문록계 소설의 대부분은 주로 통속적 흥미를 제공하는 영웅소설의 서사와 당대 여성들의 현실적 삶과 소망을 반영하는 소설적 진지성을 지니는 가문소설의 서사가 결합된 구조를 지닌다.³¹⁾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유이양문록>에 소환된 두 텍스트가 각각 가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초기작이다. 단편적

28) 박숙례(2006), 앞의 논문, 58~61쪽.

29) 여기서의 영웅소설은 여성영웅소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30) 다음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전성운, 『장편 국문소설의 변모와 영웅소설의 형성』,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11쪽.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52쪽.

31) 김은일(2016), 앞의 논문, 132쪽.

으로 보기에 <유이양문록>에는 가문소설과 여성영웅소설³²⁾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각각의 수용 양상에 따라 가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저자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유효공선행록> 연작은 2대와 4대가 서사의 중심³³⁾인데도 불구하고, <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에서 연작의 단계적 역할을 하는 3대의 유우성이 <유이양문록>에서 소환되었다. <유효공선행록> 연작에서도 유우성은 종종 문제적 인물로 표현되었으나, 능력이 뛰어나 30에 승상이 되기도 했다. 박숙례는 유우성을 <유씨삼대록>에서 인용해 왔으며, <유효공선행록>도 인식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본다. 또한 유우성이 한부마의 생각을 전달받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다소 좃대 없는 부정적 인물로 표현했다. (중략) 작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유우성의 등장이 좀 의외라 여겨졌던지 이례적으로 유태사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³⁴⁾며 유우성의 등장을 설명한다.

그러나 “부미 거쫓 국스를 위하는 체하야 니스마의 녁무디직를 탄상하야 토토스 등임이 맛당하물 일컫르니 티식 그 험원 잇는 줄 모로고 말인즉 올흔지라”에서 “험원 잇는 것을 모른다는” 서술을 좃대^Y없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험원이 잇는 것”을 아는 것이 좃대 잇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우성의 등장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할만하다. 왜냐하면 이전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유이양문록> 텍스트 내적 세계에서 창조된 인물

32) 물론 당대에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이 각각 ‘가문소설’이나 ‘여성영웅소설’과 같은 범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용어로 양문록계 소설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오해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편의와 현대학자들의 이해를 위해 ‘가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을 사용하고자 한다.

33) 최길용(1992), 앞의 논문, 141~145쪽.

34) 박숙례(2006), 앞의 논문, 57쪽.

들이라면, 유우성은 <유효공선행록> 연작이라는 텍스트에서 호출당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작가가 ‘의외’라고 여겨서 설명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유이양문록>의 텍스트 세계에서는 <유효공선행록> 연작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유효공선행록> 텍스트를 소환(인용)해 온 것을 좀 더 확실히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유이양문록>은 <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 중 어느 시점에서 유우성을 소환했는지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유씨삼대록>만 이는 작가가 유우성을 인용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 연작 전체를 알았거나, <유효공선행록>의 유우성을 알았을 것이라 생각된다.³⁵⁾

<유이양문록>에서는 두 회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시기인, ‘태사’ 벼슬을 하는 유우성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의 유우성을 확실히 묘사하고 있는 <유효공선행록>의 텍스트를 인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 부분은 유우성을 ‘태사령’으로 설정한 부분에서 단초를 얻을 수 있다.³⁶⁾ 太史令은 종5품의 벼슬로 太師와는 다르다. 앞서 언급한 태사령은 확실히 太史令인 바, 뒤에 말한 태사를 太師보다는 太史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太史令은 줄여서 太史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

35) 유우성과 유연의 부자갈등은 <유효공선행록>의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서술된다. <유씨삼대록>만 가지고는 유우성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유우성이 이부상서가 되기 전 두 회첩 때문에 가내에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정도의 정보만 주기 때문이다.

36) <유효공선행록> 연작에서는 유우성이 太史 벼슬을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太史는 종5품 정도에 해당하는 벼슬이며, 유우성에게 이러한 벼슬을 부여한 것은 소환한 텍스트에 변형을 가했다는 의미가 된다. 단 유우성이 <유효공선행록>의 인물임을 확인시키는 장치는 성의백 백운선생의 후예라는 점이다.

우성의 벼슬은 史官에 해당하는 太史令으로 짐작이 된다.

<유효공선행록> 연작을 살펴보면 유우성은 12세에 장원 급제하여 3년간 말미를 얻은 후 한림학사가 된다. 그 후 유우성은 이소저와의 합방의 문제로 방탕한 기질을 드러내며 두 명의 첩을 들여 가내에 문제를 야기한 다. 유우성은 12세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나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3년을 유예한 후에 한림학사가 된다. 얼마 후 유우성은 향주어사로 향주를 순무하게 되고 이때 두 명의 첩을 만나 부자갈등과 부부갈등이 시작된다. 유우성이 이부상서가 될 즈음에서야 그간의 행실을 바로잡고 완전한 도덕군자로 변하게 된다.

유우성이 아직 미완인 상태일 때는 장원급제 했을 때로부터 이부상서가 되기 전까지이다. 이때의 유우성은 방탕한 기질을 숨기지 못하고 심각한 부자갈등을 겪는다. 벼슬의 단계를 생각한다면 태사는 이부상서가 되기 전 지나왔을 단계의 벼슬로 <유이양문록>에서 묘사된 태사 유우성은 이부상서가 되기 전의 유우성이다. <유효공선행록> 연작에서 유우성은 장원급제 후 3년이 지나 한림학사가 되었는데, 태사는 사실 한림학사보다도 낮은 벼슬이다. 그렇다면 태사 유우성³⁷⁾은 아직 젊은 나이일 것이며, 문제적 시기의 유우성으로 봐야할 것이다.

반면 <이현경전>의 이현경은 유우성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유이양문록> 후반부의 서사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유이양문록>은 표제에 ‘유門’과 ‘이門’을 내세우며 ‘양문록’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이장삼문록’으로 불릴만하다.³⁸⁾ 실상 ‘장門’이 없었다

37) <유효공선행록>이나 <유씨삼대록>에서는 유우성이 태사가 되었다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38) 조광국, 「<유이양문록>의 작품 세계-서사구조와 결연장애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182~190쪽.

면 <유이양문록>은 2세대인 유필염과 이연기의 단위담으로 끝맺게 된다.

황명으로 니시를 마즈 상원의 두니 식식흔 품격이 장종영풍이오 섹혀난
얼골이 쉼쉴부용이 향기를 토하며 일눈은섬이 광칙를 흠님 그트니 당공이
동터 하히갓트며 평싱 탐외의 언식흔는 뉴를 두지 아니 하고 공경화락하야
④늑즈니녀를 싱흔니 기지히 옥슈지란 갓트여 부풍모즈흔여 옥텅선인 갓트
며 두 녀이 부모의 고은 풍용은 전혀 습흔여 절세흔 지용이 당세의 무쌍홀
분 아니라 ⑥당녀 월쥬 쇼져는 흠연이 모친 여풍이 이서 썩썩 상활흔고 엄정
슈이흔여 규중녀즈의 품격이 아니라 부뫼 극이흔여 제즈의 지나더니³⁹⁾

④에서 서술한 ‘6자 2녀’는 본전인 <이학사전>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
현경의 딸인 장월주라는 인물은 본전인 <이학사전>에서는 등장할 여지
조차 없는데 <유이양문록>에서는 <이학사전>의 텍스트를 변형하여 소
환한다. ⑥를 보면 이현경의 ‘딸’인 장월주는 이현경과 매우 닮은 인물로
묘사되면서 독자들은 <이학사전>의 서사와 딸 장월주의 서사를 비교하
며 읽게 된다.

장월주는 유세창과 혼인을 하지만, 유세창은 신운화가 방술을 부린 약
에 취해 장월주를 미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유세창은 장월주와 계속 대
립하게 되고 심지어 장월주의 아버지인 장연의 앞에서 장월주에게 목침
을 던져 다치게 한다. 장월주는 유세창의 이러한 태도에 유세창과 부부갈
등을 하게 되며, 이 일로 유세창은 아버지인 유진과의 부자갈등도 겪는다.
이 모든 것이 신운화의 약 때문이지만 이현경의 기질을 똑 닮은 장월주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한편 이현경의 아들인 장문현에게서 태어난 장계성과 장빙님이라는 인

39) <유이양문록> 권 37.

물도 <이학사전>에는 없었으나 <유이양문록>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물이다. 장빙님은 이창희와 혼인을 하는데 이들 부부에게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는 ‘여인이 너무 장부 같다.’는 점 때문이다. 이창희는 금강산에서 도술을 연마한 연부인의 소생이며, 강직하고 막후의 여성이라 부를만한⁴⁰⁾ 이몽해의 남동생이다. 그런 이창희의 원비가 된 장빙님은 할머니인 ‘이현경’의 기질을 쏙 빼닮은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이 때문에 이창희는 장빙님과 갈등하게 된다. 이창희가 장빙님과 대립하는 이유는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나타난다.

전후 병이 다 그딴 즈췌흔 비라 므슴 일로 치위를 당햐야 밤을 새와 이만
티 병이 날 괴운이면 그딴도록 모딘 테햐더뇨 혹싱의 성정이 본딴 녀즈의
강악함을 보면 닌 몸을 죽일가 두려햐더니 그딴의 강악하고 모질믄 진실로
수괴셔의셔 다 괴록기 어려온디라 그딴 얼굴을 디흔죽 닌 심신이 비원햐야
덩티 못햐느니 반드시 서로 얼굴을 피햐미 원이로디⁴¹⁾

이창희는 장빙님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여장부의 기질을 꺾으려 한다. 그러나 장빙님은 더욱더 꼳꼳한 자세를 취하며 이창희와 대립한다. 위 인용문은 장빙님이 이창희와 동침하기 싫어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방 밖에서 밤을 지낸 후 병이 났을 때에 이창희가 장빙님에게 한 말의 일부이다. 이창희는 스스로도 자신의 성정이 본래 여성의 강악함을 보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급기야는 본인이 장빙님의 기질을 꺾지 못할 것을 느끼고 서로 얼굴을 피하자고 한다.

이상에서 말한 장월주의 기질, 장빙님의 기질은 모두 ‘이현경’의 모습을

40) 차충환, 『<유이양문록>의 인물과 공간 연구』, 『국어국문학』 151, 국어국문학회, 2009, 283~309쪽.

41) <유이양문록> 권 71.

빠다 박은 것이다. 장월주와 장빙님은 이현경1, 이현경2라고 해도 될법한 인물들이다. <유이양문록>에서 유세창과 부부갈등을 하는 장월주의 모습, 이창희와 부부갈등을 하는 장빙님의 모습은 서사의 공간을 유門과 이門으로 옮겨 다녔을 뿐이지 결국은 <이학사전>에서 부부갈등을 겪었던 이현경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장계성은 <유효공선행록>의 유우성과 같이 방탕한 기질을 지닌 인물로 설정된다. 장계성은 매우 방탕한 인물로 속세에서 무려 여섯 명의 여인들과 정해진 연분이 있다. 이때 장계성의 원비인 이몽해가 봉선궁이라는 장소에서 서모인 연부인에게 배운 도술을 이용하여 장계성과 그의 아내들의 문제를 막후에서 중재하며 갈등을 봉합한다. 즉, 장門과 관련된 이몽해, 장월주, 장빙님은 모두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 혹은 남성에게 굽히지 않는 여성으로 표현되며 <이현경전>의 계보를 잇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유이양문록>에서 두 텍스트를 수용하면서 유우성은 단편적으로, 이현경은 그 자손의 이야기로 파생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이양문록>은 19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바, 18세기 소설의 두 흐름인 가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⁴²⁾ 주지하다시피 <유이양문록>이 <유효공선행록> 연작, <이현경전>과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을 두루 섭렵한 저자가 두 소설의 성격을 모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소설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단편적으로 수용한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여성 인물이 아닌 남성 인물을, 남성 인물 중에서도 군자형 인물이 아닌 유우성을 소환한다. 반면 <이현경전>에서는 이현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42) 김은일(2016), 앞의 논문, 110~133쪽.

<이현경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마치 이현경을 복제한 듯 이현경과 닮은 인물들을 그녀의 자손으로 설정하여 <이현경전>의 속편처럼 서사를 이어나간다.

유우성을 수용한 것은 당대에 <유효공선행록> 연작을 읽었을 독자에 대한 고려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저자는 유우성을 <유이양문록> 등장인물들에게 우호적인 인물이나 우호적인 상황을 만드는 지점에 수용하지 않고 자칫 적대적인 위치에 놓이도록 한다. 반면 <이현경전>은 가문이 번성한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현경전>의 결말에서 이현경을 수용하여 <유이양문록>에서 이현경 자손들의 서사를 시작하는 것과 달리, 유우성은 <유효공선행록> 연작 서사의 중간에서 수용한다. 이는 유우성 자손들의 이야기인 <유씨삼대록>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유이양문록> 저자가 유우성에 대해 더 이상 서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유이양문록>의 저자는 유우성의 서사를 굳이 <유이양문록>에서 진행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한 것은 ‘대중성’에 기대고자 한 것이 그 첫 번째 의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의도는 유우성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저자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유효공선행록> 연작은 남성 중심의 가문 이야기이다.⁴³⁾ 반면 <이현경전>은 여성의 우월성이 드러나는 초기여성영웅소설로 <이현경전>의 이본들 중에서도 초기 작품일수록 여성(이현경)의 우월성이 돋보인다.⁴⁴⁾ 남성 중심의 가문이야기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43) <유씨삼대록>에서 여성 인물들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곡진하게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유씨 가문’에 시집온 他姓의 ‘유씨 가문 사람들’이다. 따라서 <유씨삼대록>은 여성 인물들의 활약이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남성 중심적, 특히 남성 가문 중심적인 서사로 볼 수 있다.

44) 박양리,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본 <이현경전>의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54, 한국문화회, 2010.

여성 인물이 우월하게 표현된 서사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유이양문록>이 여성 인물 중심의 서사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우성과 이현경의 소환은 <유이양문록>의 여성 중심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라 하겠다.

2) 기체험 텍스트를 통한 독자들의 유희 공간 형성과 소통 전략

상호텍스트성은 독자가 하나의 텍스트에서 자신의 독서경험이나 추억에 근거해 또 다른 텍스트를 호출할 때 원 텍스트와 소환된 텍스트에 대한 각각의 앎이 전제되어야 한다. 박노현은 “의도적인 텍스트 소환 기법을 통해 발현되는 상호텍스트성은 ‘앎’과 ‘발견’을 전제로 한 저자-텍스트-독자 사이의 즐거운 ‘대화’”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독서과정에서 환기되는 상호텍스트성의 효과는 발견을 전후로 한 앎과 즐거움의 동시적 향유”라고 한 바 있다.⁴⁵⁾

다시 말하자면 상호텍스트성 중에서 ‘소환된 텍스트’는 기독교 체험을 한 독자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읽는 재미를 준다. 특히 고소설의 경우 패턴화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장르관습의 영향관계가 매우 활발하다. <유이양문록>은 패턴화된 텍스트들을 다시 직조하는 과정에서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을 의도적으로 소환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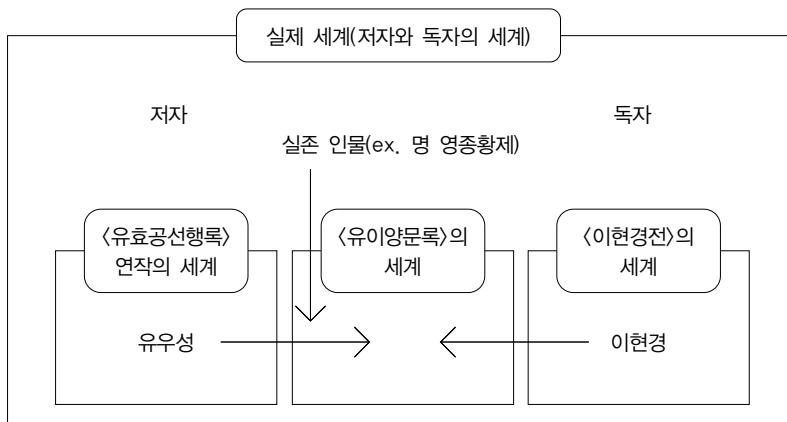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이 <여와전>과도 상호텍스트성을 이루고 있었으며,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대중성의 측면은 많이 논의 되었다고 본다.

이병직, 「<이현경전>의 이본 연구」,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45)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와 상호텍스트성」, 『한국문학연구』 4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370~3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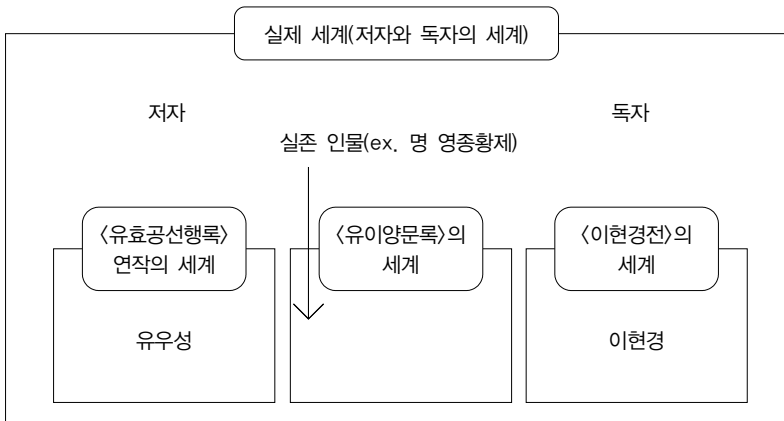
박노현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상호텍스트성을 설명하면서 “텍스트와 텍스트가 다채로운 방식으로 삽입되거나 중첩되는 양상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정교한 소통 전략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는 ‘창작자의 의도’가 반영되는 패러디나 패스티쉬처럼 전작 혹은 원작에 대한 풍자와 찬사 등의 개념이 아닌 ‘독자들의 유희공간의 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독자들은 기텍스트 체험을 저자(혹은 필사자)와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대화로 인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찾는 즐거움과 이는 것의 변형이라는 ‘재미’를 찾게 된다.⁴⁶⁾

이에 따르면 <유이양문록>의 저자는 독자와의 ‘소통전략’으로 두 텍스트를 소환한다. <유이양문록>의 독자들은 기체험 텍스트인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을 새로운 텍스트인 <유이양문록>에서 만나며 반가움을 느끼는 한편 새로움을 느끼게 된다. 저자와 독자가 존재하는 곳을 실제 세계라 하고, 그 실제 세계에는 각각 <유효공선행록> 연작이라는 작품에서 설정된 세계, <이현경전>에서 설정된 세계, <유이양문록>에서 설정된 세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46) 박노현(2011), 앞의 논문, 376쪽.

예를 들어 <유이양문록>에서 실제 세계의 명 영종황제를 소환하면서 <유이양문록>은 실제로 과거에 언젠가 어디선가 있었을 법한 이야기가 되는 효과를 누린다. 그리고 이는 대개의 고소설들이 선택하는 방식의 가장 일반적인 상호텍스트성이다. 그런데 <유이양문록>에서는 당대에 인기가 있었던 두 갈래의 대표적인 작품들과 상호텍스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영종황제와 같은 실존 인물의 소환을 통해 현실성이라는 효과를 누린다면,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의 소환을 통해 누리는 효과 역시 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상호텍스트적인 관계의 형성에는 ‘읽’이 전제가 된다. <유이양문록>의 독자가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을 모른다면 유우성을 발견했을 때의 감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이현경이 남장을 하고 장연과의 혼인을 하여 무수한 갈등을 겪었던 스토리를 모른다면 ‘이현경’의 발견과 ‘그녀의 자손들’의 이야기라는 흥미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텍스트인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을 모르는 독자에게는 단지 <유이양문록>의 세계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을 알지 못하는 독자-혹은 발견하지 못한 독자-에게 <유이양문록>은 그저 <유이양문록>만의 세계가 존재할 뿐이다. 이때 <유이양문록>의 텍스트는 섬처럼 그저 하나의 텍스트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유이양문록>의 독자가 그 작품들을 알았을 확률이 높다. 만약 두 작품을 아는 독자들이라면, <유이양문록>을 읽으면서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어느 시점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이현경전>이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즉, <유이양문록>의 서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느 시점에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서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현경전>의 서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독자들은 세 작품의 세계가 어디에선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실제 세계의 내(독자)가 읽었던 과거의 작품이 ‘지금’ 읽고 있는 작품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 <유이양문록>이 ‘현실성’을 확보하게 된다.

“과거의 시청 경험으로 독자에게 저장되어 있는 특정 텍스트의 서사가 현재의 전혀 다른 텍스트 속에서 재생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읽-발견-즐거움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극적 효과”⁴⁷⁾라는 말은 현대의 영상물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고소설 텍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의 과거 독서 경험이 저장되어 있다가 <유이양문록>이라는 현재의 텍스트 속에서 재생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 역시, 읽-발견-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극적 효과를 누린다 할 수 있다.

<유이양문록>의 향유 시기는 19세기로 보이는바, 19세기는 고소설이 범람했던 때였다. <유이양문록>의 창작자는 수많은 고소설 속에서 ‘읽히

47) 박노현(2011), 앞의 논문, 371쪽.

게 하도록 하려는 전략을 상호텍스트성에서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당대에 가장 대중적이었던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을 소환하여 현실성을 확보하는 한편 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독자들에게 아는 텍스트를 발견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려는 소통전략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이상, 이 연구는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상호텍스트성은 ‘넓은 의미’에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좁은 의미’에서 주어진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좁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은 유우성을 소환한 경우와 이현경을 소환한 경우로 나타난다. 이때 유우성은 가문소설인 <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 연작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며, 이현경은 여성영웅소설인 <이현경전>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다.

각각 가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두 작품이 <유이양문록>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유이양문록>이 가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유우성은 단편적으로 수용하고 <이현경전>의 이현경은 그 자손들의 등장시킴으로 서사를 확장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즉,

<유이양문록>의 저자는 남성 인물의 가문이 중심이 되는 <유효공선행록> 연작보다는 여성 인물이 구축해가는 서사인 <이현경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유이양문록>은 여성영웅소설과 더욱 친연성이 있으며 여성 중심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된다.

한편 <유이양문록>은 전형성을 확보했던 대중적인 텍스트를 수용하여 그것을 양문록의 상황에 맞도록 변형을 하며 양문록계 소설의 텍스트 세계를 구축해나간다. 이때 인기 있는 텍스트를 수용하는 것은 독자들의 ‘읽’을 전제로 한 독자들과의 ‘대화’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유이양문록>의 저자는 기텍스트를 통해 <유이양문록>을 읽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소통 전략의 일환으로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이현경전>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소설들이 존재했던 19세기에서 <유이양문록>이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다.

이상 본고는 <유이양문록>의 상호텍스트성에 논의를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고전서사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을 갖는 작품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는 ‘장르관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유사 텍스트의 교섭 양상 역시 활발하게 보인다. 따라서 다른 고소설 작품에서도 이러한 양상과 의미를 찾아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유이양문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 공혜란, 「<유이양문록(劉李兩門錄)>에 나타난 환생 연구 : 혼인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06쪽.
- 김은일,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풍유양식의 수용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297~328쪽.
- 김은일, 「양문록계 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17쪽.
- 김희영 역, 롤랑 바르트,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2002, 1~272쪽.
-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와 상호텍스트성」, 『한국문학연구』4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363~397쪽.
- 박숙례, 「<유이양문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1~132쪽.
- 박양리,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본 <이현경전>의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54, 한국문학회, 2010, 79~109쪽.
- 서정민, 「한글 대하소설 속 여성 그림 활동의 특징과 문화적 배경 -<소현성록>과 <유이양문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311~334쪽.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368쪽.
- 이병직, 「<이현경전>의 이본 연구」,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159~197쪽.
-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01, 1~412쪽.
- 이지영, 「중국 배경 대하소설에 나타난 금강산의 의미 -<유이양문록>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49, 한국문화언어학회, 2008, 213~246쪽.
- 전용문, 「<이학사전>의 구조와 인물성격 연구」, 『고소설연구』3, 한국고소설학회, 1997, 247~275쪽.
- 조광국, 「<유이양문록>의 작품 세계-서사구조와 결연장애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179~206쪽.
-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1~387쪽.
- 차충환, 「<유이양문록>의 인물과 공간 연구」, 『국어국문학』151, 국어국문학회, 2009, 283~309쪽.

- 최길용, 「〈유효공선행록〉 연작연구-〈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의 작품적
연결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07, 국어국문학회, 1992, 131~160쪽.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1~896쪽.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1~515쪽.

ABSTRACT

The aspects and the meanings of intertextuality represented
in *Yuiyangmunrok*

Kim, Eun-il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dentify the aspects and the meanings of intertextuality represented in *Yuiyangmunrok*. The intertextuality means the entirety of every knowledge represented between texts in a broad sense and the quotation or reference of other text written in the given text in a narrow sense. In this thesis I analyzed the aspects and the meanings of intertextuality represented in *Yuiyangmunrok* in respect of intertextuality in a narrow sense.

The intertextuality aspects shown in *Yuiyangmunrok* can be found in *Yuwuseong* of <Yuhyogongseonhaengrok> series and *Leehyeongyeong* of <Leehyeongyeongjeon> series. The former is a representative work of Family novel and the latter is a representative work of Female heroic novels. Therefore, to summon the two texts means the combination of Family novels and Female heroic novels. *Yuiyangmunrok* accepts a *Yuhyogongseonhaengrok* series fractionally. By contrast, <Yuiyangmunrok> accepts <Leehyeongyeongjeon> actively. Judging from this, I identified that <Yuiyangmunrok> has the woman oriented character.

On the one hand, the *Yuhyogongseonhaengrok* series and *Leehyeongyeongjeon* are the texts whose popularities are assured. By summoning of the two texts, readers will meet a experience text in *Yuiyangmunrok*. Readers will feel freshness such as the variants of text and be glad to meet the text which has been already read. Therefore, the author of *Yuiyangmunrok* might have summoned the two texts as the communication strategy to make readable stories.

Key Words Yuiyangmunrok, intertextuality, Yuhyogongseonhaengrok,
Yussisamdaerok, Leehyeongyeongjeon

논문투고일 : 2016.6.30

심사완료일 : 2016.8.8

게재확정일 : 2016.8.18